

월요광장

지식인은 누구인가?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신문을 보다가 불쑥 시야에 들어온 '지식인'이라는 단어가 참 혼란스럽고 민망하던 참에, 지식인이 뭐하는 사람이라는 질문을 받았다. (최근 문재인 퇴진을 촉구하는) 320명의 이름으로 내놓았다는 '지식인 선언'에서 그 '지식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묻는다고 한다. 개념 오용이나 약용은 다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위태롭다. 개념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소통과 이해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경우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를 지식인으로 칭하는 이들에게는 지식인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지식인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대 보면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다. 프랑스의 '드레퓔스 사건'이다. 드레퓔스라는 유대계통의 프랑스 육군 장교가 적국인 독일

에 군사 기밀을 넘겨줬다는 반역 혐의로 유죄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다. 당시 프랑스는 사회적 분열이 심하고 여러모로 불안하던 시기였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공중체의 희생양이었다. 마침 유대인 혈통의 드레퓔스는 보수 언론과 군사 조직에서 찾던 '제물'의 조건을 제대로 갖춘 인물이었다. 이렇게 해서 1894년에 일어난 드레퓔스 사건이 프랑스 사회를 뒤흔들었다. 물론 이 사건은 조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범이 잡히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지만 드레퓔스에게 내려진 종신형 판결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이 일을 비판하는 사람도 없었다. 조국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외쳐대는 사람들과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에 맞서야 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 작가 에밀 졸라만 예외였다.

'목로주점' 등으로 유명한 에밀 졸라(1840~1902)는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다. 졸라는 1898년 1월 13일 자 신문에 '나는 고발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저 유명한 고발문을 통해 사건을 조작한 정부와 프랑스군 참모본부를 맹렬히 비판했다. 졸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분열을 부추기는, 그 '권력의 추악함'을 결코 눈감아 줄 수 없었다. 졸라의

행동은 많은 지식인과 청년들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냈고 결국 1906년에야 드레퓔스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바로 이런 졸라의 행동을 '지식인의 탄생' 순간이라고 말한다.

졸라와 드레퓔스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졸라는 '완벽한 타인'의 일일 뿐만 아니라 이익은커녕 오히려 큰 위험한 일에 끼여든 것이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이다. 졸라는 자신의 행동이 '진실을 밝히려는 지극한 열정'에 따라서 행한 '영혼의 외침'이라고 말한다. 어떤 계산이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념이 전부였다는 뜻이다. 졸라에게서 우리는 지식인의 원조와 전형 을 본다. 지식인은 자신의 이득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지식을 밀천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거나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한 모든 행위는 지식인의 행동이 아니다.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처럼 지식인이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연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얼른 보기에 지식인과 소위 전문가는 비슷하다. 하지만 전문가는 말 그대로 좀 더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다. 좀 더 안다고 해서 지식인은 아니다. 전문가는 신

념이 아니고 실리를 위한 지식을 도구로 사용하는 기능인이고 직업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지식은 특권이고 자본이다. 반면에 지식인의 조건은 자기비판적인 성찰 속에서 세상의 모든 독단을 거부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연대의식이다. 따라서 전문가는 지식인이 될 수도 있지만 지식만 있다 해서 지식인은 아니다.

지식인의 책임과 관계없이 스스로를 지식인이라 칭하는 것은 참 치욕스러운 일이다. 세상 어디에도 반세기를 넘은 휴전 상태가 더 계속되기를 바라며, 탈원전을 반대하는 지식인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자신들의 이름 석 자도 밝히지 못하는 지식인들아라니, 쩀하기조차 하다. 그러면서도 지식인이라는 명함을 사용하는 이들에게서 지식인은커녕 전문가의 모습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스스로를 지식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에 대해 너무나 무지한 것은 아닐까? 또는 아직도 지식인은 대단한 권력이라는 미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說

공금이 째째돈인가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처음 공개하면서 비리 행태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유치원 교비로 원장의 빚을 갚거나 차량 유지비와 공과금, 배우자 세금까지 내고 가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공금을 개인 주머니돈처럼 유용한 사례가 비밀비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벌어진 비리에 대해 80개 사립 유치원을 감사했는데, 그중 세 곳을 제외한 77곳에서 194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전남도교육청도 114개 유치원을 감사해 같은 기간 동안 벌어진 88곳의 비리를 확인했다. 적발된 비위는 회계 부정이 가장 많았다.

광주에서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출근도 하지 않은 원장 가족에게 급여를 준 유치원들이 다수 적발됐다. S유치원의 경우 원장 아들에게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3800만 원의 급여를, I유치원은 계약 서류도 없이 설립자에게 10개월간 인건비 명목으로 2750만

원을 지급했다. Q유치원은 원장 개인이 납부해야 할 대출 비용 1154만 원을 교비로 냈다.

전남 지역 상당수 유치원 원장과 설립자들도 교비와 개인 돈을 구별하지 않았다. 장성 A유치원은 2016년 5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원장 차량 유지비로 지급했고, 목포 B유치원은 설립자와 배우자 차량의 세금이나 과태료 등 121만 원을 교비로 낸 사실이 적발됐다.

공개된 비위 내용을 보면 유치원 원장들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유치원을 교육 공간이 아닌 비즈니스 무대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다. 학부모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사립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다. 국공립 유치원의 조기 확충과 함께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제도화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5월 광주, 프랑스의 과거 청산에서 배운다

광주 금남로에 위치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는 특별한 전시, '라 콜라보라시옹'을 열고 있다. 프랑스 내셔널 아카이브가 지난 2014년 해방 70년을 맞아 기획한 '라 콜라보라시옹, 비시 파리 베를린 1940-1945' 특별전이 광주로 옮겨 온 것이다.

오는 12월 말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 점령하의 프랑스에서 나치에 협력했던 부역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는데, 8개 섹션으로 나누어 '협력'이란 '미명'으로 대중을 현혹했던 나치 부역자들의 민낯을 드러낸다. '콜라보라시옹'(Collaboration)은 '협력'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다. 국가차원의 협력을 선택한 비시 정부 지도자들, 나치 잔당의 나팔수가 된 언론인과 문화 예술인들, 나치즘의 파수꾼을 자처한 파리의 '콜라보'

들을 낱낱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프랑스는 반역자와 전쟁 범죄자를 추적하며 단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파리의 '끝나지 않은 과거 청산'과 광주의 '이제야 시작하는 5·18 청산'을 대비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과거 거사에서 교훈을 찾는 프랑스의 지속적 노력을 보면서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 니콜라스 우즐로(59) 부관장 역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누가(집단발포 등에) 책임을 갖고 경정을 내렸는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가 나치에 협력했던 부역자들의 반역 행위와 반인도적 범죄, 나치의 지배 정책 등을 고발·단죄한 것을 본보기 삼아 우리 또한 이제라도 광주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無等鼓

네덜란드 화가 피터르 브뤼헬(1525-1569)은 생전에 농민들을 많이 그려 '농민 화가'라 불렸다. 브뤼헬이 활동하던 16세기는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유럽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모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구교도와 신교도로 나누어 있던 네덜란드는 구교의 선봉장이었던 스페인의 침략을 받아 한 동안 지배를 받았다.

브뤼헬이 그린 '농부의 결혼식'(1567)은 당대 민초들의 삶을 형상화한 그림으로, 어느 시골의 결혼식 피로연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다. 스페인의 종교적 탄압과 경제적 위기는 피폐했지만 그림 속 주민들의 모습은 평온하면서도 정취가 넘친다. 하객들은 웅기종기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라고 해 봐야 고작 소프와 빵, 한 잔의 술에 불과하다. 눈에 띄는 것은 잔치와는 아랑곳없이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다.

최근 발표된 비리 유치원 명단과 그 유형이 학부모는 물론 많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비리 행태도 상상을 초월했는데 명품 백을 사거나 성인용품 구매하는 데 공금을 쓴 원장도 있었다. 어

는 사립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 급식은 오병이어(五餅二魚)의 기적이었다"며 "사과 몇 개로 수십 명을 먹이거나 수박 한 통으로 100여 명을 먹인 적도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오병이어'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 중 하나를 말한다.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데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엔 로마 제국의 통치와 부패한 계사장들의 수탈로 굶주리는 민초들이 적지 않았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긴 예수님을 한 소년 이 건넌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모

두를 먹이는 기적을 행한 것이다. '오병이어'의 본질은 민초들에 대한 연민과 배려, 나눔이다. 그러나 비리 유치원들의 '오병이어'는 탐욕과 착취 그 자체다. 다시 브뤼헬이 그린 '농부의 결혼식'을 언급하자면, 근궁한 일상일망정 어린아이만큼은 배불리 먹이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삶의 근본이라는 철학을 일깨운다.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법조칼럼

도시철도 2호선, 찬반 결정 이후를 대비해야



이정훈  
변호사

중교통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호선의 경우 광주 송정역(KTX)과 광주공항(비행기)을 지나가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종합버스터미널인 광천동 유스퀘어(고속버스)는 지나가지 않는다는 취약점이 있다.

따라서 유스퀘어 근처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역(농성역, 화정역)의 출구 위치 조정과 추가, 근처 버스 정류장의 위치 조정, 환승 주차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로 도시철도 2호선을 도입하지 않게 됨으로써 절감한 예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광주 초등학교 근처 스크 존에 교통 안전 시설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과 교통 오지에 대한 마을 버스 추가 운행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남지구와 수완지구, 운남지구, 선운지구 등 신규 택지 지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 노선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

반면 도시철도 도입에 찬성 의견이 나오는 경우, 건설 비용 절감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 예로 일각에선 백운교차로에서 전남대 후문까지의 구간의 경우 2호선 예정 부지가 푸른길 공원을 지나게 돼 있어 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을 염려하며, 푸른길 공원 부지가 아닌 외곽 도로로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전제된다면 푸른길 공원이 최적 노선이며 교통 체증 및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푸른길 공원 공사를 한 후 '원상 회복 수준으로 나무를 심고 가꾼다'고 광주시민을 설득한다면 환경 훼손을 이유로 한 반대의 목소리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해당 시민단체 및 관련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어 푸른길 공원의 복원 과정과 공사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 해시키기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하나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노면 전차 즉, 트램의 도입 여부다.

트램은 이탈리아나 일본 등 해외의 주요 도시에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적인 교통 해결을 위한 목적보다는 관광 목적으로 설치됐거나 근대기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것을 일종의 전통으로서 계속 존치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트램을 도입하게 되면 도시철도와 비교할 때 교통 체증이 우려되고, 2호선 예정 지역에는 광주 전경을 유람할 만한 지역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은 고민이다.

마지막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과 기존 버스와의 연계성이다.

도시철도 2호선을 반대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버스 노선을 더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여기에서 그칠 것만 이 아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의 경우, 도시철도와 버스는 상호 보완적인 교통수단이다. 장거리와 도시 주요 지점의 경우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주거지나 동네의 경우 버스 통행 해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2호선 신설과 함께 기존 버스 노선의 전면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운명이 곧 결정된다.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론화위원회의 현명함 결론을 기대해 본다. 이를 통해 광주시민과 이해 관계인들이 그 결과를 흔쾌히 수용하고 더 이상 분열과 대립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기고

영화 '안시성' 과 조합장 선거



류문영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자그마한 성이 몇 배의 대군에게 버티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시대를 넘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모두의 의지로 가능해 보인다.

내년 3월 13일 치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제한이 시작됐다. 흔히들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금품을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선거는 지역 사회 분위기, 주민들의 인식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다.

영화 '안시성'을 보며 성주보다 '안시성 전체'를 눈여겨본 이유다.

조합장 선거에서 구성원은 바로 조합원이다. 대다수 조합이 직선제를 택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의미다. 다수에 불허 엑스트라라며 시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내를 이루고 바다를 만들 듯이 구성원과 그들의 사고가 시류를 형성하는 것이다.

물론 공직 선거가 아니라서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 여기는 이도 있을 것이다. 전남의 경우 인구 수 대비 20% 정도

가 조합 선거인이다. 이 비율은 도시의 동 지역보다는 농어촌의 읍·면으로 갈수록 높아지며, 타 사·도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다.

선관위가 의무 위탁을 받은 조합장 선거는 생활 주변에 제일 밀착된 선거이다. 따라서 조합장 선거 분위기는 공직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조합-통·폐합이 많이 진행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인력이나 범위 면에서 소규모 조합이 많다. 선거인수가 적어 금품 제공이 득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후보자와 조합원간의 친밀한 연고 관계 등에 합입이 은밀한 금품 제공이 잔존해 있다.

2015년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의 매수·기부 행위 건은 전체 선관위 단속 건수의 38.4%(매수 293건, 기부 762건)를 차지하였다. 특히 전남의 경우는 매수·기부 행위 건이 전체 단속 건수의 46.4%(매수 52건, 기부 112건)에 이르고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궤변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로사상을 논하며 한 잔의 막

걸리, 약간의 인사처리(돈)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여전하다. 받는 사람에게도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있으나, 선거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제도와 현실의 간극만 벌어질 뿐이다. 소규모 조합이 많은 만큼 위법 행위는 당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내년 조합장 선거에서 '공직 선거에 준하는 공정 선거 기틀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 모두의 공명 선거 의지이다. 자정 노력이 바탕 되지 않는다면 모래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를 4개월 앞두고 특실한 조합을 위한 구성원으로서의 선거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함께 되짚어보자.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이 이번 조합장 선거 슬로건이다. 안시성을 지켜냈던 그 먼 어느 날의 선조들처럼, 공명정대하고 아름다운 선거 과정을 통해 튼튼한 조합으로 건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동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문화부	기획관리국	업무국
220-0632	220-0652	227-9600	220-0551
경치부	여론매체부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3	220-0692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경재부	예향부	(FAX 02-773-9335)	
220-0664	220-0693		
사회부	사진부		
220-0642	체육부		
220-0642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